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	--	---	--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우리가 따라야 할 행위의 표준과 규칙의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정당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개인 생활이나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현상은 설명해야 할 사실들의 집합체일 뿐임을 간과한다
- ②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 탐구가 윤리학의 본질임을 간과한다
- ③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를 제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이 문화 현상의 일부라는 점을 간과한다
- ⑤ 윤리학은 도덕적 개념의 의미 분석에 주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악에 대한 인식이 선에 대한 인식보다 쉬우며, 악의 존재는 선의 존재보다 인간을 더 도덕적으로 행위하게 한다. 구원의 예언보다는 불행의 예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윤리학은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①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를 습득해야 한다.
- ②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기술의 영향은 숙고의 대상이 아니다.
- ③ 인간은 사전적 책임이 아니라 사후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 ④ 책임의 대상이 겪을 공포를 현세대의 의무로 전환시킬 수 없다.
- ⑤ 인간은 가치 중립적 관점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영혼은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게 된다. 순수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살아 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일이다.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은 순수한 인식을 가질 수 없다.
 을: 영혼은 그것을 보호해 주는 몸이 분해되면, 영혼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도 흩어져 이전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없고, 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 ① 갑: 불멸의 영혼은 죽음 이후 참된 실재의 세계로 갈 수 있다.
- ② 갑: 인간은 죽음 이후 감각으로 순수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을: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최고의 악이므로 회피해야 한다.
- ④ 을: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 ⑤ 갑, 을: 죽음은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목민관의 직분은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그들의 밭과 재산을 고르게 하는 것이나 부역을 공평하게 하는 것도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善)의 원천이고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한 자는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

- ① 목민관은 사익에 얽매이지 않고 공익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
- ② 목민관은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③ 목민관이 청렴해도 직무에 능하지 않으면 칭송을 받기 어렵다.
- ④ 목민관은 백성을 편안히 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 ⑤ 목민관의 청렴은 지혜의 많고 적음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우리는 절대 빈곤이 나쁜 것임을 안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마땅히 원조의 의무를 갖는다.
 을: 우리는 고통받는 사회의 구성원이 자유로운 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또는 적정 수준의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원조해야 한다.
 병: 우리는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서로 다른 개인이다. 국가는 개인에게 사회적 선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원조를 해야 한다.
 ㄴ. B: 원조는 주체와 대상의 친소 관계와는 무관하게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이다.
 ㄷ. C: 원조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ㄹ. D: 국가가 원조를 통해 부국과 빈국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6.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 ‘안에서’ 구성원들은 선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밖에서’ 국가들은 선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가보다 상위의 주권적 권력이 국제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국익을 위해 무정부상태에서 타국과 경쟁하기 때문에 보편적 원칙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평화는 힘의 논리에 의한 세력 균형을 통해 분쟁을 억지할 때 가능하다.

- ① 국가 간 분쟁 억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국제법 제정이다.
- ②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는 국제 사회의 주된 행위자가 된다.
- ③ 국제 관계에서 대화를 통한 영구 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 ④ 국가는 국제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선량한 집단이다.
- ⑤ 국제 사회의 주권자인 세계 정부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7.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회 계약은 자기 자신을 처벌하도록 하거나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지 못한다. 누구든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을: 사회 계약에 사형은 포함될 수 없다.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가 될 수 없다.

병: 사회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살인범은 사회 계약을 어긴 자로서 추방에 의해 격리되거나, 공중의 적으로서 죽음에 의해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

- ① 갑: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 ② 을: 종신 노역형은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③ 병: 개인은 사회 계약으로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 ④ 갑, 병: 살인범은 사회 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
- ⑤ 을, 병: 형벌의 목적은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으로 국한된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한계급이 명성을 얻기 위해 행하는 여가와 과시 소비의 공통적인 특징은 낭비이다. 여가의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고, 과시 소비의 경우에는 재화의 낭비이다. 여가와 과시 소비는 모두 부의 소유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며,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편의성의 문제일 뿐이다. 여가와 과시 소비는 모든 사회 계층에게 위력을 발휘한다.

- ① 과시 소비는 사회의 최상 계층인 유한계급에서만 나타난다.
- ② 재력을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성향은 과시 소비로 나타난다.
- ③ 유한계급은 타인과 상관없이 자족하기 위해 여가를 즐긴다.
- ④ 유한계급은 부나 권력의 획득만으로 사회적 명성을 유지한다.
- ⑤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과 수요는 언제나 반비례한다.

9.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성관계는 부부가 상호 존중하면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정당화됩니다.

성관계는 자율성에 근거한 사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관계는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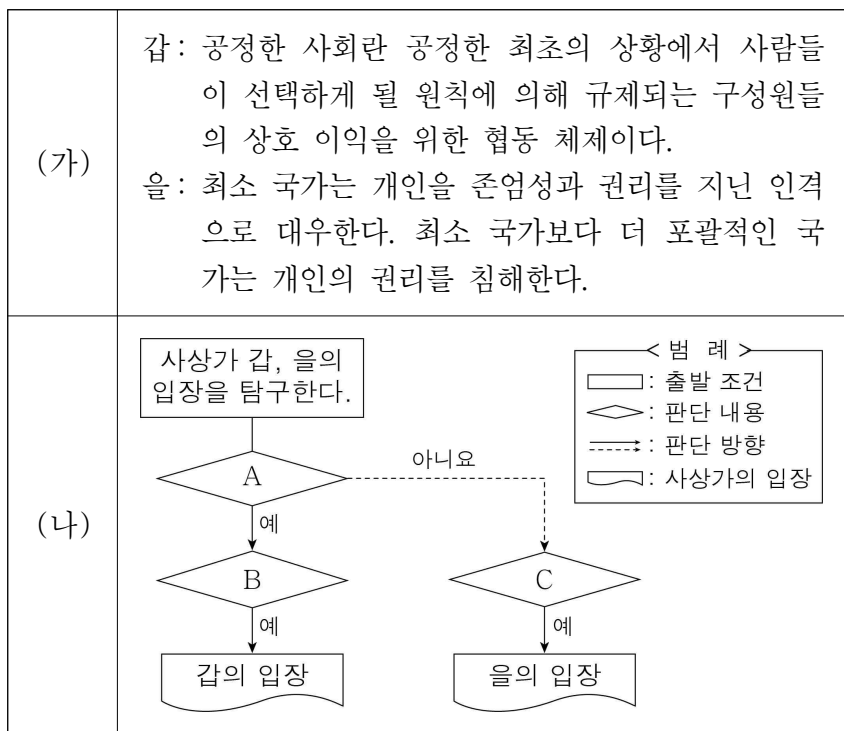


< 보 기 >

ㄱ. 출산을 목적으로 부부가 동의한 성관계는 정당한가?
 ㄴ. 성관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ㄷ. 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은 성관계 정당화의 필수 조건인가?
 ㄹ. 쾌락을 위한 성관계는 항상 상대의 인격성을 침해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선택되는가?
 ㄴ. B: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할 때 제한될 수 있는가?
 ㄷ. B: 차등의 원칙은 법과 정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에도 직접 적용되는가?
 ㄹ. C: 정형적 분배 원칙은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하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배움을 행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줄어든다.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 무위(無爲)에 이른다. 무위에 이르면 못하는 바가 없어진다.

을: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게 되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된다. 군자(君子)가 도를 배우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쉽다.

- ① 갑: 배움을 통해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 ② 갑: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고 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 ③ 을: 인의(仁義)를 실천하기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 ④ 을: 존비친소(尊卑親疏)를 구별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한다.
- ⑤ 갑, 을: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들이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과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공통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여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을: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 ① 갑: 절대적 군주가 있는 것보다 주권이 없는 것이 덜 해롭다.
- ② 갑: 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의 본인이 된다.
- ③ 을: 입법부는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권력이 있다.
- ④ 을: 시민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 ⑤ 갑, 을: 자연 상태에서는 준수해야 할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13.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영구 보관이 가능해져 사라지지 않는 정보들로 인한 개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를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잊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언론사에 잊힐 권리를 행사하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됩니다. 언론사의 경우에는 정정 보도를 요청하여 개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 보도만으로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기사가 삭제되지 않아 개인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정 보도가 잊힐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잊힐 권리의 행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 ② 정보 사회 발전으로 인해 잊힐 권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가?
- ③ 언론사의 오보를 수정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 ④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 공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가?
- ⑤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잊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가?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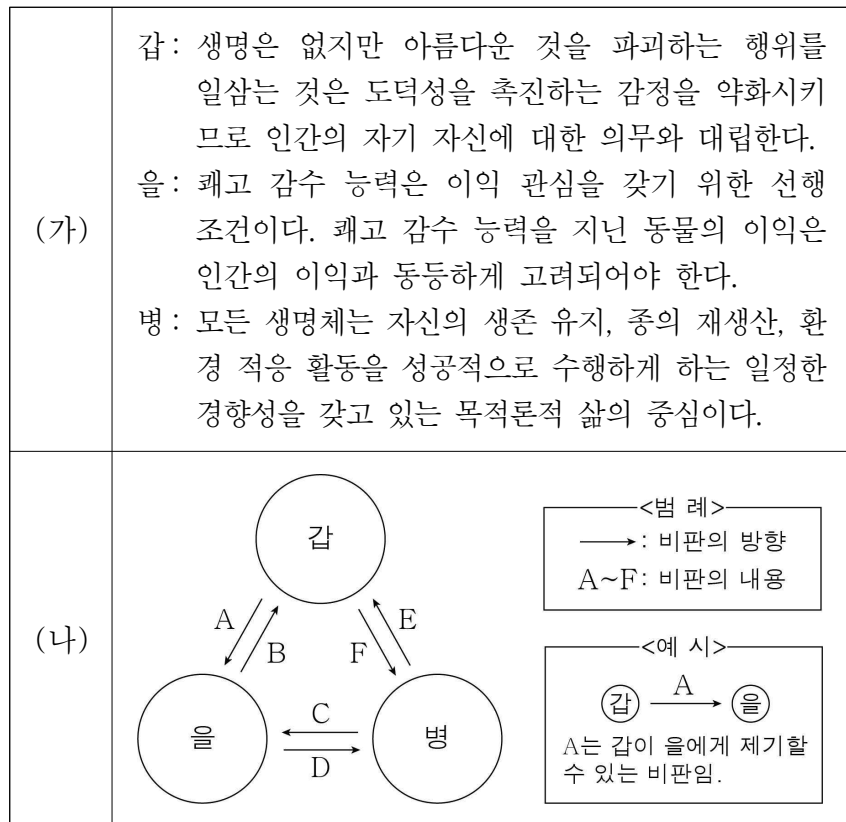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는 행위의 필연성이다. 결과가 아니라 나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곧 순수한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명령일 수 있다.

< 사례 >

기업가 A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회사의 부도를 막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기업의 희생이 목적인 모든 행위는 정당화됨을 명심하세요.
- ② 동기와 무관하게 결과가 좋으면 옳은 행위가 됨을 명심하세요.
- ③ 기업가의 의무에 맞는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 ④ 기업을 살리려는 맹목적 경향성에서 벗어나 선의지를 따르세요.
- ⑤ 경제적 유용성 유무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됨을 고려하세요.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F: 의식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간과한다.
- ② B: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함을 간과한다.
- ③ B, D: 인간을 위해 동물에게 친절한 것은 중 차별주의 입장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④ C: 어떤 개체가 이익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C, E: 생태계를 조작하여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됨을 간과한다.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악이란 즐기는 것[樂]으로 사람에게는 음악이 없을 수가 없다. 즐거우면 그것이 목소리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표현되며 악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킨다. 음악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혼란이 없을 수 없다. 옛 임금은 그러한 혼란을 싫어해 우아한 음악을 만들어, 사람이 음악을 즐기면서도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였고, 소리의 가락과 장단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 ① 통치자는 백성을 교화시키는 도구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우아한 음악으로 더럽고 악한 기운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③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거지가 다를 수 있다.
- ④ 조화로운 음악은 사람에게서 즐거움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 ⑤ 도리에 어긋나는 음악이 유행하면 사회 질서의 유지가 어렵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담론에 참여할 기회가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담론 참여자는 모두 담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발언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어떤 담론 참여자도 억압을 받지 않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담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보 기 >

- ㄱ. 담론 참여자는 개인적인 욕구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
- ㄴ. 다수가 인정한 주장도 담론 과정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 ㄷ. 담론 참여자는 상호 주관적 논증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
- ㄹ. 담론 참여자는 모두 합의의 결과와 부작용을 수용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하늘은 신의 초월성을 계시하고, 대지는 우주적인 어머니이자 양육자로서 자신을 나타낸다. 우주의 여러 가지 리듬은 질서, 조화, 항상성, 풍요를 드러낸다. 우주는 전체로서 실재적이고 살아 있으며, 성스러움을 지닌 유기체이다. 즉 우주는 존재와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계시한다. 존재의 현현(顯現)과 성현(聖顯)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 ① 종교적 인간에게 모든 자연은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 ②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 ③ 자연은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며 스스로 성스러움을 드러낸다.
- ④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을 통해 현현하는 성스러움을 숭배한다.
- ⑤ 자연물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더라도 여전히 자연 안에 존재한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히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보다 적합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을: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을수록 그만큼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보 기 >

- ㄱ. 갑: 소수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ㄴ. 갑: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이 있을 수 없다.
- ㄷ. 을: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대상으로 시민 불복종을 행사할 수 있다.
-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신념을 정당화 근거로 삼는 양심적 행위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0.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0신문 0000년 00월 00일

칼럼

생명 공학의 발달로 유전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 실제로 체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환자 본인의 동의에 따라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주로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므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닌 배아의 파기가 수반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크다. 또한 치료 전에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로 얻은 배아의 유전 정보가 치료가 아닌 자질 강화에 활용되어 적극적 우생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① 모든 유전자 치료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 ②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를 위한 유전자 검사는 허용해야 한다.
- ③ 유전자 치료는 자녀의 자질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④ 유전자 검사의 결과는 치료 이외 목적으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 ⑤ 인간 배아를 수단화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